George Herbert(1593-1633)

# 형이상학시 시작법에 나타난 자아의 탐구:
# 『도르래』(*The Pulley*)

*Michelle Lyu*

조지 허버트(George Herbert, 1593-1633)은 17세기 대표적인 형이상학파 시인(Metaphysical Poets)의 한 사람이다. 형이상학파 시인으로는 존 던(John Donne)을 중심으로, 존 던의 제자이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조지 허버트(George Herbert), 리처드 크래쇼(Richard Crashaw), 헨리 본(Henry Vaughan), 앤드루 마블(Andrew Marvell), 토마스 트래헌(Thomas Traherne), 헨리 킹(Henry King), 아브라함 카울리(Abraham Cowley), 존 클리블랜드(John Cleveland)등 일군의 시인이 있다.

현대는 격돌하는 산업사회란 물결 속에서 물질문명과 배금주의 사상에 떠밀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사유로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자아의 정체성을 추구해 가는 방법으로 형이상학파 시인의 한 사람인, 조지 허버트의 시 『도르래』(*The Pulley*)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지 허버트, 그가 보여 준 시의 기법을 통해 나타난 시 정신(esprit)과 시 안에서 표현하는 중심적 주제가 현재 "자아"(Self)와 어떤 연관관계로 조응할 수 있는지를 따라가 본다. 자아란 영혼과 육체, 이성과 감성, 사상과 사물 등의 상반되고 이질화된 경험을 통합하고 전체적인 생명체로 재창조하는 자신의 정신적인 각성이라 여겨진다. 통합된 감수성과 몰개성이론을 근거로 한, 형이상학시가 21세기를 사는 현대에서는 현재성과 자아 정체성을 제시하는 가장 적합한 원형으로 생각된다.

형이상학파 시인들은 17세기 시대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시작법이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적인 문체나 정서 유발 적인 표현을 거부하고, 사실적이며 논리적인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생각은 21세기를 사는 현대에도 형이상학적 기상(Metaphysical conceit)을 사용하여 유사성이 없거나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물들의 심상을 이용하여 그 심상들의 이면에 함축된 의미로 결합을 화하고, 그 의미의 결합으로 표현하려는 주제를 더욱 뚜렷이 부각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형이상학 시는 17세기에 들어와 전성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시풍은 연애시와 종교시의 극치를 이루면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까지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의 형태가 되었다.

형이상학 시란 **기상(奇想, Conceit), 역설(Paradox), 아이러니** 등을 통한 지성적인 감각, 그리고 압축된 생략 구문 등의 특징으로 극적인 언어구사에 의한 효과를 더하게 하는 시작법을 말한다. 이러한 중요한 특징이외에 대화체의 문체, 통징(엄벌하여 다스린다)과 같은 기독교적 교리의 요소가 함축적으로 드러나 보이기도 한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형이상학파 시인들이 자주 썼던 형이상학적 기상(Conceit)은 좀 더 복잡하고 지적인 경향의 기상(Conceit)으로 발전한다. 이는 어떤 관련이 없는 두 개의 형이상학적인 정신적 특징과 물질계의 대상 사이를

결합하는 기법이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양극화된 이질적인 사상이나 사물을 폭력적인 결합을 통해서 통합시킴으로써 시의 새로운 감동과 긴장을 유발하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시적 기법을 기상(Conceit)이라고 한다. 즉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악한 것, 가장 고상한 것과 가장 비천한 것, 가장 추상적인 것과 가장 구상적인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 영혼과 육체, 남녀, 명암 등의 양극화 된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어떤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결합시킴으로써 구상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형이상시학의 기상은 이질적인 두 개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상이나 신앙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드러내기 위해서 알맞은 객관적 상관물을 찾는 데 주력한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나 관념을 감각적인 어떤 사물이나 사건, 정황 등으로 전환되게 하는 대상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엘리엇이 언급한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로서 이는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를 나타내는 방법이 된 한 쌍의 사물, 혹은 정황이나 일련의 사건을 발견하는 것 이외는 없다. 그것은 독자의 감각체험으로 끝남과 동시에 그 정서를 환기하는 사물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형이상학파 시인들은 주로 개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 주관적 정서를 객관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구상화하는데 힘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엘리엇이 말한 '몰개성이론'이다. 이런 몰개성은 시가 시인의 개성을 초월하여 완벽하게 객관화된 경지를 말한다. 혼연 일체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형이상학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곧 기상(Conceit)임을 감안할 때 이런 기상적 비유는 곧 형이상학시의 생명이요, 형이상학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미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형이상학시에서 기상(Conceit)은 형이상학시의 특징 중의 특징으로서 형이상시의 다른 모든 특징이 바로 이 기상과 관련되어 작용되고 있다.

조지 허버트의 시『도르래』에서 형이상학시의 대표적 특색 중의 하나인 기상(Conceit)이 또 다른 형이상학시의 순수한 특징인 통징(痛懲)이란 과정을 통해 자아성찰, 즉 "자아 찾기'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징은 엄벌을 가하고 징벌한다는 의미다. 형이상학시가 사회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도 얼마나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면서 현실을 깊이 체감하며 쓴 시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형이상시의 특성 때문에 형이상학파 시운동은 주로 존 던이나 조지 허버트, 앤드류 마블, 헨리 본 등과 양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다수 참여했다.

『도르래』 조지 허버트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축복의 단지를 곁에 두시고, 말씀하시길,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겠노라,
이 세상 여기저기 흩어진 부를
이 한 줌에 다 모으리라."

그래서 먼저 힘이 길을 뚫자, 이어서 아름다움,
다음엔 지혜, 명예, 쾌락이 흘러들어 갔다.
거의 모두 다 들어갔을 무렵, 하나님은 잠시 멈추셨다.
모든 보물 중에 혼자만 남아,
휴식이 맨 바닥에 있음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이 보석조차 인간에게 부여한다면,
나보다도 내 선물들을 더 숭배할 것이니,
자연을 지은 하나님 대신, 자연에서 안식할 것이요,
그러면 결국 우리 둘 다 패배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다른 축복은 누리나,
늘 목마른 불안에 젖게 하리라.
인간은 풍요롭되 초조한 불안에 시달리게 하라.
그리하여 적어도, 선(善)이 그를 인도치 못하면,
권태가 그를 내 품에 던질 수 있도록."

**The Pulley** by George Herbert

When God at first made man,
Having a glass of blessings standing by,
"Let us," said he, "pour on him all we can.
Let the world's riches, which dispersèd lie,
Contract into a span."

So strength first made a way;
Then beauty flowed, then wisdom, honor, pleasure.
When almost all was out, God made a stay,
Perceiving that, alone of all his treasure,
Rest in the bottom lay.

"For if I should," said he,
"Bestow this jewel also on my creature,
He would adore my gifts instead of me,
And rest in Nature, not the God of Nature;
So both should losers be.

"Yet let him keep the rest,
But keep them with repining restlessness.
Let him be rich and weary, that at least,
If goodness lead him not, yet weariness
May toss him to my breast."

먼저, 『도르래』에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정신세계와 사물세계를 폭력적인 결합을

통해서 융합하는 형이상학시의 시적 기상(Conceit)을 발견할 수 있다. 극도의 양극성을 띠우는 두 개의 사물에서 '타락'이 '축복' 속으로 뛰어 들어가 연소되어 삼켜지는 것은, 절대 신앙을 가진 자만이 절대자의 불꽃 속으로 뛰어 들어가 자신은 사라지고 절대자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광스런 상태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의 제목인 '도르래'가 암시해주고 있다. 21세기의 균형이란 관점으로서 도르래로 물건을 끌어올릴 경우, 그 물건이 땅바닥에 붙어있을 때의 무게는 제로 상태이지만 그 물건을 끌어올려 가장 높은 목적지점에 올려놓을 때의 무게는 가장 힘든 상태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아 성찰이란 면에서 본다면 땅바닥에 가장 낮은 상태이며, 그저 나름의 삶에 맹목적인 세속생활에 젖어있으며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이지만 동시에 존재자로서의 성찰은 제로인 상태다. 또한 자아를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는 절대자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살아갈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게 되며 그로인해 순간순간 자신을 성찰하는 자아인식의 세계로 간다는 점에서는 깊은 자아 통제, 자아 정체성의 확인하는 순간이 된다.

다음으로는 형이상학시의 다른 면인 역설(Paradox)적인 면도 찾아 볼 수 있다.패러독스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우의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나 실패하지 않도록 "초조한 불안(repining restlessness)"은 남겨둔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인간을 신에게로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권태(weariness)" 즉 "휴식(Rest)"이 부족이 인간을 신에게 돌아오게 하도록 한다는 자아의 정체성적인 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간곡한 부탁의 소리다.

조지 허버트는 이 시에서 태초에 조물주는 인간을 창조하면서 축복의 단지에 힘과, 아름다움과, 지혜와 명예 그리고 부와 쾌락 등을 흘러들어가게 했으나 안식만은 넣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고달픈 삶을 통해서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매달리면서 더욱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며 결국은 자신의 대한 성찰로 주체적 자아로의 인식을 해 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도르래가 의미하는 형이상학시의 순수한 기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고된 인생과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저속하게 사는 안일한 인생, 이런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의 양극화 된 전체적인 현상을 도르래를 통해서 교묘히 결합한 형이상학시의 기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에서 경건생활과 세속생활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형이상학적인 상태를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도르래를 통해서 폭력적으로 결합한 기상(Conceit)과 또한 형이상학시의 또 다른 특징인 "단어"로 그들의 정서의 지적 등가물로 발견하려는 시도 때문에 연상 작용이 쉽지 않은 낱말을 택했다. 형이상학파 시인들은 상업, 과학, 신학, 지리 등의 생경한 용어들을 더 선호한다. 그 당시의 과학정신을 따라서 분석적이었다. 과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도르래라고 하는 생경한 단어를 인용한 점에서도 이 시가 형이상학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대표적인 특징의 하나인 형이상학시의 순수한 통징이 위의 예시에서 그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도르래라고 하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그것으로 얻어진 종교의 정신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를 축복과 타락의 관점으로 결합시킨 형이상학적 기상(Conceit)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형이상시의 특징은 주관적인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객관적 상관물에 이입시켜 표현함으로써 시인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고 객관화되어 몰개성의 경지로 끌어올렸고, 그들의 기상

적 비유를 통해서 동떨어지고 상반된 세계를 폭력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추상적이고도 형이상학적인 인식이 감각적인 형태로 구상화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이 도르래로 순수환 통징을 통해서 인류구원의 목소리를 높이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현대를 사는 현대인에게는 자아 탐구를, 자아 정체성 찾기를 심각하게 심연으로 형성화한다고 보이게 한다. 형이상학시는 17세기 드라이든이 존 던의 시가 너무 철학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명명된 말이다. 이렇게 형이상학시운동이 처음부터 많은 조소와 비난을 받으며 출항했고 17세기 형이상시가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웠다가 18세기에 들어와서 극도로 관념적이고 지적이었던 신고전주의와 개인의 감정과 열정을 중시했던 19세기의 낭만주의 사조로 인해서 잠시 매몰되었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허버트 그리어슨(Herbert John Clifford Grierson, 1866~1960.2.19.)이 형이상학시들을 재수집하고 편집하면서 비로소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엘리엇 등의 일군의 학자가 재평가함으로써 21세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형이상학시가 큰 각광을 받게 되이다. 더욱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종교인의 생활정서가 형이상학적인 것일 때 객관적 상관물과 정서적 등가물을 통한 형이하학적 세계의 구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된 감수성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는 데서만 가능하다. 여기에 형이상시의 절묘한 시의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작품『도르래』의 핵심주제는 “불안”이다. 불안은 다양한 사회제도 속에서 그 조건들과 함께 발현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과거의 개인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대의 흐름은 불안으로 점철되어 왔지만, 그 불안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혹은 주관적인 의식세계 속에서, 때로는 종교 속에서, 심지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과학 속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 특히 현대사회는 ‘불안의 시대’라고 지칭될 만큼 개인,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적인 ‘존재’ 자체로부터 사회구조적으로 강요된 개별화와 고립감, 심지어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금융자본의 투기와 시장의 교란,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나 환경 및 생태위험 등 불안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시대의 불안을 성찰하고, 또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인간에게 불안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회를 해체하는 병리현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역사의 문명을 진보시키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안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와 결핍, 경쟁과 강박, 내재적인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요소이기도 하였지만, 개인이나 역사의 변동(진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동적 에너지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불안은 인간에게 환경을 변형시키고, 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하나의 증후이기도 하고, 새로운 욕구로 도전하게 하는 촉매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안은 말끔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항존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유발한다.  바로 이러한 불안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불안이라는 증후를 통해 사회변동의 흐름을 성찰하게하고, 더 나아가 불안이 개인이나 역사발전에 어떠한 에네르기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불안에 대한 인식, 즉, 긴장과 갈등, 소외 등 병리현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시켜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상들에 내재하는 불안의 속성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응전’을 다시 반추하게 될 계기를『도르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자아 정체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불안의 생산성, 항존성’이 어떻게 그 17세기와 21세기의 커다란 간극을 넘어 현존하는 문제로 남는가를 조지 허버트는 굳게 사유케 한다.

**인용문헌**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현대성과 자아 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 Age*). 권기든 역.

서울: 새물결, 1997
이근섭. 『The Metaphysical Poetry』. 서울: 신아사, 1997.
이근섭. 「George Herbert의 시적 표현법」. 서울: 신아사, 1997.
이재호, 이창준. 『17세기 영시』. 서울: 탐구당, 1996.
Joan Bennett, M. A. *Five Metaphysical Poet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Mario A. Di Cesare. *George Herbert and Seventeenth-Century Religious Poets.* New York, London: W.W. Norton & Company, 1978.
Beer, Patricia. *An Introduction To The Metaphysical Poets.* Hong Kong: The Macmillan Press Ltd, 1989